목포시, 730억 공사 '턴키 발주' 강행 논란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

시, 종합경기장 신축 싸고 전기·소방·통신업계 강력 반발
전기공사협회 "명백한 실정법 위반…분리발주해야" 주장

목포시가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경기장을 신축하면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해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시가 730억원 규모의 종합경기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정을 무시한 채 '턴키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전기공사업계는 물론 통신·소방 등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음에도지자체가 실정법을 앞장서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 전기나 통신, 소방 등의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형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분리발주가 이뤄지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제11조는 '전기공사는 건설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경우 등 3가지만을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목포시의 종합경기장 신축공사는 분리발주의 예외조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기 등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목포시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턴키방식으로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전남도의 승인을 거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업계는 종합경기장의 준공 시기가 오는 2022년 5월까지로 분리발주를 해도 전혀 차질이 없다며 목포시가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워 전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분리발주와 턴키발주에 대한 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7일 아파트공사를 턴키 발주한 서울투자운용 측에 벌금형을 선고하며 "입찰단계에서 턴키를 선택한 것은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성질상 분리 발주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통합발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전기공사업계는 목포시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턴키발주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통신, 소방업계와 함께 목포시청 앞에서의 항의 집회와 목포시장 면담 등을 통해 분리발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과 고발 등 '분리발주 무력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2022년 10월로 예정된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는 공사를 그해 5월까지 끝내야 해, 불가피하게 턴키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항의 방문 온 협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정읍시-한국철도공사정읍역 업무협약 체결
지역 문화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나서

정읍시와 한국철도공사 정읍역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와 정읍역은 지난 12일 '정읍 샘고을 관광열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정읍역은 관광객 모집과 열차운영, 사업비 집행으로 상생을 모색하게 된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철도 관광상품을 이용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1인당 숙박비 1만원을 지원한다.

또 3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방문하면 교통비와 식비 등 1인당 1만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KTX라는 교통수단을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수도권 등 대도시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정읍을 알리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정읍역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를 '정읍 방문의 해'로 정하고 500만 관광시대 개척을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내장호 수변지역 개발, 구도심재생·시내관광을 위한 조곡천 복원,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스포츠타운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올 빈집정비 등 341동 시행

남원시가 주거복지 실현 등을 위한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시는 세부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95동)과 빈집정비사업(107동), 희망하우스(10동),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129동) 등으로 추진한다.

이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또는 신축하는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연리 2.0%,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이 조건이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주차장,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도심빈집 1동을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해 3년간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희망하우스는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동당 2000만원 지원해 5년간 주거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를 해주는 사업이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시비와 복권기금 50%씩 5억1600만원을 확보해 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지붕, 벽체의 보강 및 보일러, 전기·가스시설 등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군이 22일까지 도시민을 대상으로 장독대 분양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고추장 담그기 행사 모습. 〈순창군 제공〉

순창군 "장독대 분양 받아 장 담그세요"
이달 22일까지 희망자 모집…1구좌당 10만원

'장류의 고장' 순창군이 이달 22일까지 장독대 분양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참여자가 고추장 명인과 함께 전통 방식으로 직접 장을 담그고 담근 장을 6개월간 숙성한 후 도시민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장독대 분양자 등을 초청해 23일 장 담그기와 한복 및 전통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참가자는 1구좌 당 10만원을 내고 직접 담근 장으로 만든 간장 3.6ℓ와 고추장 및 된장을 3kg씩을 가져갈 수 있다.

장독대 미분양자도 당일 체험비 1만원을 내면 장 담그기 체험과 함께 고추장 500g을 받는다.

김성엽 미생물산업사업소 계장은 "예로부터 순창에서는 장맛을 내기 위해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을 즈음한 '손 없는 날'에 장을 담갔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시민은 22일까지 순창군 미생물산업사업소(063-650-5473)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장 담그기' 문화는 보존가치가 높아 지난해 12월 27일 국가무형문화재(제137호)로 지정됐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전북도, 미세먼지 30% 절감 대책 추진

7890억 투입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1만3000여대 폐차

전북도가 앞으로 5년 안에 미세먼지를 30% 줄이기로 하고 789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 등 23개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먼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만3000여대를 단계적으로 폐차한다.

올해 3658대, 내년 2300대, 2021년 2400대 등이다.

대신에 천연가스 버스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4161대 늘린다.

수소차 2666대와 어린이 통학용 LPG차 1336대, 전기 이륜차 585대도 5년에 걸쳐 보급한다.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인근에 282개의 도시 숲 또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고 미세먼지가 심한 봄과 가을철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업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대기오염 측정망 15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차량 2부제와 소각시설 가동시간 단축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작년의 24㎍/㎥에서 17㎍/㎥로 3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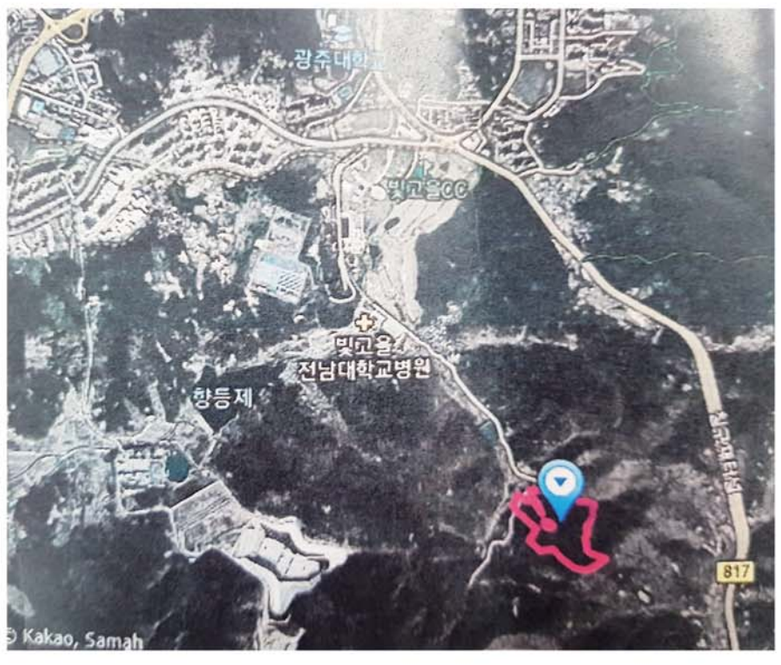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보다 이동 오염원과 비산먼지의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해 종합대책을 만들었다"며 "미세먼지 줄이기를 환경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예향 NAVER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